

AI 등 첨단산업 국제·사실상표준에 집중 투자

- 국표원, '26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82개 신규과제 공고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첨단산업 분야의 수출 증진과 글로벌 표준 선점 지원을 위해, '26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의 신규 과제 82개를 2월 26일 공고한다.

* 우리 기술을 국제·국가표준으로 개발제안하고, 표준화 활동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표준 R&D 사업

올해는 전년 대비 34억 원이 증액된 459억 원을 투자하여, 첨단산업 분야의 표준 선도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AI·미래차·로봇 등 M.AX 분야를 비롯한 첨단산업 15개 분야* 신규 과제에 86억 원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그간 중점적으로 지원했던 국제표준뿐만 아니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기술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제품·부품의 사양을 결정하는 사실상표준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 (첨단산업 15개 분야) AI,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차, 미래선박, 로봇, 첨단제조, 양자, 핵심소재, 원자력, 청정에너지(수소, 태양광, 풍력), 첨단바이오, 항공우주, 메타버스

첨단산업 분야의 표준 선점은 세계 新시장 진입과 확산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우리 기술이 국제표준에 반영될 경우, 국내 산업 전반의 수출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급격한 기술변화가 이루어지는 사실상표준 분야에 선제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술 주도권 우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6년 제1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 과제 공고 >

- 지원방법 : 국표원(www.kats.go.kr)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홈페이지 참조
- 공고기간/지원대상 : '26.2.26.(목)~3.27.(금) 18:00까지 / 기업, 대학, 협회, 단체 등
- 지원규모/내용 : 82개 과제(8,627백만원) / 표준연구개발, 표준기반조성 등

김대자 국표원장은 “표준은 미래기술의 방향성과 기준을 정립하여 시장 진입을 앞당기는 전략”이라며, “첨단산업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표준 개발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가기술표준원	책임자	과장 직무대리	배진석 (043-870-5350)
	표준정책과	담당자	연구관	이광은 (043-870-5344)